

번호: PO-MA-012					
제 목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비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ETWEE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저 자 및 소 속	정백근1), 이진석2), 김현수3), 김재현4) 1)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및관리학교실, 3)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금융보험학부, 4)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금융보험학과 BaekGeun Jeong1), Jin-Seok Lee2), HunSoo Kim3), JaeHyun Kim4)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cs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 Division of Economics, Finance & Insurance, College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4) Department of Finance & Insurance, School of Business, Seowon University				
분 야	의료관리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각국 정부들은 종종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민간의료보험을 고려하곤 한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려고도 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다양한 경로로 공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다소 복잡한 재원조달 기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현재 및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할 때, 공적의료보장 제도와 민간의료보험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민간의료보험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민간의료보험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실태 및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접근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p> <p>방법: 세계보건기구의 민간의료보험 프로젝트 보고서와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의료보장 제도 하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중 프랑스, 영국, 독일의 사례를 고찰하고, 민간의료보험이 기본적인 보건의료재원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Medicare에 대한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고찰해서, 이를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비교하였다.</p> <p>결과: 민간부문에서 지출되는 보건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지출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현재 38.7%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51.7%, 1998)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31.2%, 2000), 영국(24.5%, 1998)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다. 민간의료보험 보험자의 보험료 수입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현재 전체 GDP의 1.4%인 반면, 1999년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은 모두 1% 이하의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료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독일의 경우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7.6%였고, 영국은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개인보험의 연평균 성장률은 12%, 집단보험은 3%미만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15.6%로서 독일과 영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보장범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상 보장되는 질병만 보장해주는 positive system을 실시하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 보장되지 않는 범위를 범이나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질병은 모두 보장해 주는 negative system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프랑스가 사용자가 지원하는 민간의료보험료에 대해서 피용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민간의료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자들의 지급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현재 67.2%인데 비해서 프랑스는 1998년 84.5%, 독일은 2000-2002년의 경우 66%, 영국은 2000년 현재 79%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법을 비교해 보면, 영국과 미국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표준상품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medicare 대상자들이 medicare에 대한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자들이 위험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자들의 지급률을 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상품제도,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료 지원, 위험선택 및 지급률에 대한 정부의 개입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p> <p>결론: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은 공적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간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지출비중, 민간의료보험 보험자의 보험자의 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민간의료보험료의 연평균 성장률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격한 성장 추세는 개인의 보장성 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은 지급률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필수적인 규제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향후, 급성장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의 역기능이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p>					